기초연구 2004-02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연구

- 창문아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경기문화재단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연구
- 창문아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기관명 : 창문아트센터

책임연구원 : 박석윤(협성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 김원기(협성대학교 교수)

신재풍(홍익대학교 미학 석사)

류소영(협성대학교 학사)

연 구 요 약 문

21세기를 일컬어 '문화의 세기'라 한다. 그만큼 오늘날은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 시행 이후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산업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들은 서로 앞 다투어 다양한 문화정책을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문화예술의 생산자로서의 예술인들의 창작을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적 요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중 예술인들의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현실의 논리 속에서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창작의지를 구현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창작공간의 확보가 제일 시급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격감 현상에 따라 양산되고 있는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조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을 제외하면 본론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 번째 장은 또 다시 3개의 절로 이루어진다. 우선 폐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폐교의 증가원인과 함께 경기도내 폐교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9년과 2001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폐교재산 활용 기본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 설정과 더불어 그 조성 목적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본론의 두 번째 장은 국내외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해외의 경우는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의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의 르 빠삐용(Le Pavillon)', 라파(L'AFFA 프랑스예술진흥협회), 니스의 빌라 아르송(Villa Arson), 미국은 P.S.1. 현대미술센터(Contemporary Art Center),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VSC, Vermont Studio Center), 매트리스 팩토리(Mattress Factory), 독일은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Schloss Solitude Akademie), 칼스루헤의 미디어아트센터(ZKM), 베를린 'DAAD Berliner Kunstlerprogramm' 베를린 베타니겐(Kunstlehaus Bethanien), 일본은 교토아트센터, 아쿠스 프로젝트(ARCUS Project), 시가라키 도예문화공원(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논의의 대상으로는 국악한수, 문화예술촌쟁이골, 밀머리미술학교, 아름다움만들기, 안성문화마을, 양동미술연구소,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우음도생태문화학교 현대도예문화원, 창문아트센터가 선정되었다.

본론의 마지막 장은 폐교를 활용한 국내 창작스튜디오중 하나인 창문아트센터를 논의의 중심사례로 선정하여 창문아트센터의 지역여건 및 제반사항을 비롯하여 운영프로그램의 현황, 운영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펼쳤다. 창문아트센터의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폐교를 활용한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겪고 있거나 겪어야 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지역 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차 례

Ⅰ. 서 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Ⅱ. 폐교 활용 방안으로서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6

1. 폐교의 증가 원인 및 폐교 현황 ····· 6
   1) 폐교의 증가 원인 ····· 6
   2) 경기도內 폐교 현황 ····· 9
2. 문화예술 진2흥 방안으로서의 정부의 폐교 활용 ····· 14
   1)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 방안의 당위성 ····· 14
   2) 정부의 폐교 활용 촉진 방안 ····· 18
3.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 및 조성목적 . ····· 24
   1)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 ····· 24
   2)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조성목적 ····· 27

Ⅲ. 국내외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현황 ····· 29

1. 해외의 창작스튜디오 ····· 29
   1) 프랑스 ····· 30
   2) 미 국 ····· 33
   3) 독 일 ····· 36
   4) 일 본 ····· 39
2. 국내의 창작스튜디오 ····· 42
   1) 국악한수 ····· 45

2) 문화예술촌쟁이골 ····· 48
3) 밀머리미술학교 ····· 50
4) 아름다움만들기 ····· 52
5) 안성문화마을 ····· 53
6) 양동미술연구소 ····· 55
7)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 57
8) 우음도생태문화학교 ····· 58
9) 현대도예문화원 ····· 60
10) 창문아트센터 ····· 62

Ⅳ.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사례 분석 : 창문아트센터 ····· 64

1. 창문아트센터의 현황 ····· 64
1) 지역여건 및 제반 사항 ····· 64
2) 운영프로그램 현황 ····· 72
2. 창문아트센터의 운영 성과 ····· 82
3. 창문아트센터의 향후 발전 방안 ····· 84
1)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84
2)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 ····· 86

Ⅴ. 결 론 ····· 89

1. 폐교 활용을 가로막는 문제점 ····· 89
2.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 정립 ····· 93
3.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 94
4.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 개선 방안 ····· 98

참고문헌 ····· 101

표 목 차

<표 1> 도시화 및 농촌 인구 ····· 7
<표 2>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 7
<표 3> 경과연수별 총괄 폐교 현황 ····· 10
<표 4> 처리 종결 폐교 현황 ····· 10
<표 5> 경기도 지역별 폐교 현황 ····· 11
<표 6> 경기도 內 미활용 폐교 현황 ····· 13
<표 7> 예술인과 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 ····· 16
<표 8> 예술 활동 만족 이유 ····· 16
<표 9> 예술 활동 불만족 이유 ····· 17
<표 10> 국가별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정의 ····· 27
<표 11>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 ····· 30
<표 12> 경기도 內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 ····· 43
<표 13> 국악한수의 현황 ····· 45
<표 14> 문화예술촌 쟁이골의 현황 ····· 48
<표 15> 밀머리미술학교의 현황 ····· 50
<표 16> 아름다움 만들기의 현황 ····· 52
<표 17> 안성문화마을의 현황 ····· 53
<표 18> 양동미술연구소의 현황 ····· 55
<표 19> 여주 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의 현황 ····· 57
<표 20> 우음도 생태문화학교의 현황 ····· 58
<표 21> 현대도예문화원의 현황 ····· 60
<표 22> 창문아트센터의 현황 ····· 62
<표 23> 창문아트센터의 시설 현황 ····· 66
<표 24> 창문아트센터의 입주 작가 현황 ····· 67
<표 25> 정원채 고가 현황 ····· 69
<표 26> 남이장군묘 현황 ····· 70

<표 27> 비봉땅 자연학교 현황 ····· 71
<표 28> 습지공원 현황 ····· 71
<표 29> 창문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74
<표 30> 환경예술제 세부 행사 내용 ····· 76
<표 31> 창문아트센터와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달과정 ····· 78
<표 32> 창문아트센터의 문화체험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 79
<표 33>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 ····· 80
<표 34> 2004년 쌀 구매 약정 현황 ····· 81
<표 35> 남양 장날전 행사 내용 ····· 85
<표 36> 경기도 교육청 폐교재산 대부 요율 개정안 ····· 92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우리를 둘러싼 제반 상황들이 급박하고도 다양하게 변화해가고 있는 오늘날,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양할 수 있고 그 해결 방안 역시 다양할 수 있겠으나, 문화의 중요성만큼은 대개가 인정하고 있다. 문화는 개인의 사유 형성 과정이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념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도 한다. 그래서 21세기를 일컬어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한 규정이며 그만큼 문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산업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하는 향토문화축제라든가 지역의 예술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행정집행기관들은 서로 앞 다투어 다양한 문화정책을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산업, 문화축제, 예술단체 육성 등의 다양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애써 만든 문화정책이 각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구체화되어 실효성을 거두기기까지 문제점이 없는지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고 충분하게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고려 사항은 예술인들의 창작을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요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다. 즉 문화

예술의 생산자로서의 예술인들의 창작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발적인 상생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로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야말로 문화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효과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상생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문화복지와 문화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경제적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문화예술 정책은 활용하기에 따라 그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잠재성을 지닌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술인의 창작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종래에는 창작과 전시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지원 방식은 순간적인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지원 시스템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오늘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순간적인 가시적 효과를 위해 불안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즉 문화예술의 생산자인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꾸준하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창작 기반을 흔들림 없이 조성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지원 방식이 필요하고, 이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창작 의지를 구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상업적 현실의 논리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안정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예

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다. 마음 놓고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공간 확보에 대한 제약은 심지어 창작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의 축소 내지 박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수용자에게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문화예술을 진작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커다란 위기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다각도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경제논리에 민첩하게 적응하기 힘든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대도시의 비싼 건물임대료는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최소한의 조건마저도 위태롭게 하며 엄청난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은 작품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만 마련돼도 가능하고, 굳이 호화시설을 갖출 필요도 전혀 없으며,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의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 번잡한 도시에서 작품 제작에 집중하지 못한 채 비싼 건물임대료를 비롯한 주위의 여러 가지 조건을 의식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한적한 전원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불타는 예술적 의지를 구현시키는 것이 예술인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술 창작 공간 마련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뾰족한 대책 없이 늘어만 가고 있는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격감 현상은 수많은 폐교를 양산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폐교 현상은 단순히 학교를 닫는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 중심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문화 및 교류의 중심지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붕괴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폐교 현상과 맞물려 문화예술인들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 그들의 예술적 의지를 구현시킬 수 있는 창작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법령의

미비와 지역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 주도의 탁상공론식 전시 행정으로 민·관 모두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교 현상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요청 및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예술 창작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마련이라는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격감 현상으로 인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종합하여 상생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조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은 인구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예술 극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시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지역분권화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학교마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격감으로 야기되는 취학 학생의 감소와 교육운영비용 등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문화예술의 생산자 및 향유자를 비롯한 문화주체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또

한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즉 지나온 날들에서 발굴해 내야 할 긍정적인 전통적 가치는 살려내고 미래지향적으로 창조해내야 하는 새로운 가치들은 찾아내어 지역 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을 적극 육성해내는 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인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을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화성시 수화동에 위치한 '창문아트센터'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시간적으로는 2004년 2월 27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수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자료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관내 시각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예술인들의 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에서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 사례와 해외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정리하고 창문아트센터의 실천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창문아트센터의 운영 사례 등을 통해 여타의 폐교 활용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겪고 있는, 또는 겪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Ⅱ. 폐교 활용 방안으로서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1. 폐교의 증가 원인 및 폐교 현황

1) 폐교의 증가 원인

폐교 증가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른 학교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지역별 인구격차의 심화,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운동이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폐교 발생의 1차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1945년 광복 이후 문맹퇴치를 위해 초등학교 6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늘어가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교사로 유도했으며 학생 수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조하여 도서벽지에도 학교 설립을 장려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차 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만 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학교를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앞장섰고 학교 부지나 주민들의 노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도서벽지에도 학교가 들어서게 됐고 학교의 각종 행사는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사회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농업·수산업·목축업 등을 경제적 생산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의 1차 산업에서는 노동력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고, 반면에 제조업이나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2차 산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후 산업사회가 더욱 더 진전될수록 금융·통신·운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과 정보·의료·교육 등의 지식 집약적 산업인 4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결과 우리나라도 산업사회의 진전, 인구 증가, 도시의 발달 등으로 지방의 농어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 도시화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도시화 및 농촌 인구

(단위 : 명, %)

연 도	전국인구	도시인구	도시화율	농촌인구	농촌인구비율
1985	40,467	29,870	73.8	10,597	26.2
1988	42,801	32,792	76.6	10,008	23.4
1991	44,690	35,350	79.1	9,340	20.8
1996	47,417	39,404	83.1	8,013	16.9
2001	49,973	42,971	86.3	6,822	13.7

<표 2>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

업 종	1962	1970	1980	1990	2000	2001
농·임·어업	37.0	26.6	14.7	8.7	4.7	4.4
광 업	2.0	1.5	1.5	0.6	0.3	0.3
제 조 업	14.4	21.0	28.2	29.2	31.3	30.3
건설·전기·가스·수도	4.6	6.6	10.1	13.7	10.8	11.1
서 비 스	·	44.2	45.5	47.9	52.9	54.1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기에 급

격한 산업화가 이뤄지고 있어 의외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급속한 도시 인구 증가와 급속한 농어촌 인구 감소는 모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 쪽에서는 문화·예술·복지·정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집중되고 늘어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빈곤해지고 박탈되게 된다. 문화·예술·복지·정보 등의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회의 집중 현상은 다시 도시 인구 증가와 농어촌 인구 감소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로 파급되어 결국 도시에서도 문화·예술·복지 등의 기회에 대한 질적인 쾌적성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현상은 도시나 농어촌 그 어느 곳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적 발전만이 그 해결책이다.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의해 지역의 기존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교육시설인 학교도 들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으로 학생수의 급감 현상을 들 수 있다. 학생 없는 학교를 상상할 수 없듯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학생수는 필수불가결하다. 한두 명의 적은 인원의 학생으로는 그들의 사회성과 학습권, 문화 복지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때 학교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학생들이 떠나간 학교는 가장 큰 동력을 상실한 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곳이 문을 닫음으로 해서 생기는 공동체 문화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서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늘어만 가고 있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의 시설과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에 문화예술의 소외를 막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여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

치기에 앞서 폐교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단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 범위를 경기도로 좁히기로 한다.

2) 경기도內 폐교 현황

경기도는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와 더불어 현재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서울과 가깝다 보니 서울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적지 않지만 서울로 유출되는 인구 역시 많은 곳이다. 또한 서울과 동일한 문화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문화예술시설들이 서울에 집중되는 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점점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현상도 오늘날에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성도시의 개발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은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하기 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즉 서울을 왕래하기 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뿐, 경기도 전역이 골고루 개발되고 발전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덜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유출 현상도 심해지고 자연스레 폐교 현상도 심해지게 되었다.

1982년 교육부에 의해 시작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조치에 따라 2004년까지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2,993개교에 달한다.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폐교의 수는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는 폐교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뚜렷한 활용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아직도 전국에 널려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는 19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52개 교가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이러한 폐교 현상은 <표 3>

에서 보듯이 1987년에서 1996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30.3%와 43.4%, 총 73.6%에 해당하는 112개 교가 문을 닫았다. 이후에는 주민 반대와 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도 상당수의 학교가 폐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경과연수별 총괄 폐교 현황

경 과	18년 이상					17~13년 이상					12~8년 이상					8년 미만								계
연도 / 구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초	1	1	3	1		2	8	10	13	13	7	6	26	17	8	2	4	10	7	6	4		1	150
중													1		1									2
계	1	1	3	1		2	8	10	13	13	7	6	27	17	9	2	4	10	7	6	4		1	152
분포율	3.9 %					30.3 %					43.4 %					22.4 %								100.0

하지만 <표 4>에서 보듯이, 경기도에서 폐교된 152개 교 가운데 현재까지 매각, 반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종결된 폐교는 52개 교 뿐이다.

<표 4> 처리 종결 폐교 현황

폐교수 (A)	종 결 폐 교 수 (B)									관리 폐교수 (C=A-B)	비고
	구분	매각	반환	기관 설치	기타	인 천 인 계			계		
						옹진	강화	소계			
152	‘85이전	1	3						4	100	
	‘86～’90	11	1	1					13		
	‘91이후	1	2	6	2	15	9	24	35		
	계	13	6	7	2	15	9	24	52		

처리 종결된 폐교 52개 교를 제외한 관리 폐교수 100개 교의 경과 연수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폐교가 52개 교, 5~9년 경과된 폐교는 31개 교, 그리고 5년 미만 경과된 폐교는 17개 교이다.

<표 5> 경기도 지역별 폐교 현황

연도 \ 시군		수원	동두천	안산	남양주	여주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용인	안성	시흥	계
10년 이상	89				1								2						3
	90			3								3	1	4					11
	91		2								4		3			1			10
	92				1		1					1							3
	93											1	1	1					3
	94	1		1			2		2			1	5	7	1		2		22
	소계	1	2	4	2		3		2		4	6	12	12	1	1	2		52
9~5년 이상	95						2			3		1	3	1			1		11
	96					2			1					1		1	1		6
	97						1			1									2
	98								2				1				1		4
	99		1		1	2							2			1		1	8
	소계		1		1	4	3		3	4		1	6	2		2	3	1	31
5년 미만	00						1	2			1		1	2					7
	01										1		1	2	2				6
	02					1					1		1						3
	03																		
	04													1					1
	소계					1	1	2			3		3	5	2				17
계		1	3	4	3	5	7	2	5	4	7	7	21	19	3	3	5	1	100

이를 다시 시·군별로 보면, 경기도의 25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군포, 김포 등 8개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 지역에 폐교가 위치하고 있고, 특히 가평·양평에서 40%에 해당하는 40개 교, 화성·포천·연천 등지에서 60%에 해당하는 60개 교가 폐교됐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폐교가 집중돼 있는 것은 시·군의 지리적 여건 및 개발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지역일수록 문화와 예술적인 혜택을 덜 받게 되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지역 공동체문화의 중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 지역의 공동체문화는 큰 기둥을 잃고 붕괴의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폐교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로써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폐교를 마을 공동체 문화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교류와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대책을 자치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보려고 해도 법적인 체제가 아직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열정으로 추진한다 해도 그 실효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제대로 그 쓰임새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 건물이나 시설 관리가 지방교육청에 맡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청의 인력 및 폐교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물론 풍족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으로 폐교에 대한 과다한 관리비나 건물 개·보수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대책 없이 폐교를 흉물처럼 방치한다는 것은 지역 문화의 붕괴와 주변의 자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심지어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까지 전락할 가능성을 생각할 때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폐교를 지역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문화예술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서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폐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도내 미활용 폐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 6> 경기도內 미활용 폐교 현황

지 역	학 교 명	폐교년도	주소
동두천	동두천초 걸산분교	1999	걸산동 50-8
안 산	화정초(구)	1994	안산시 화정동 519
파 주	금곡초	1998	법원읍 금곡리 336-5
광 주	광주초 목현분교	1995	광주읍 목현리 386-2
포 천	신북초 신평분교	1990	신북면 신평리 214-1
	영북초 대회산분교	1993	영북면 대회산리 451
	냉정초	1990	관인면 냉정리 339
가 평	가평초 승안분교	1990	가평읍 승안리 302-1
양 평	단월초 석산분교	1990	단월면 석산리 136
	청운초 내현분교	1990	청운면 가현리 199-2
이 천	율면초 월포분교	1994	율면 월포리 610-1
	율면초	2001	율면 오성리 550-5
용 인	수지초 염광원분교	1996	수지면 동천리 471-1
	어정초 동진원분교	1999	구성면 중리 669
안 성	공제초	1996	공도면 불당리 63
	고삼초 고동분교	1994	고삼면 쌍지리 769-2
	양성초 방축분교	1994	양성면 방축리 187-1

앞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기도내 미 활용 폐교수는 총 17개 교이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동두천, 안산, 파주, 광주, 가평이 각각 1개교, 양평, 이천, 용인이 각각 2개교 그리고 포천과 안성이 각각 3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오늘날 정신적·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대개가 인정하듯이 우리나라도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접어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 관할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창작 공간 마련에 대한 어려움과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으로 폐교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한다면 이농현상으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문화 활력소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

다. 싱싱한 먹거리의 공급처인 농어촌과 문화예술이 절묘하게 만난다면 그 효과는 도시에 비해 더 클 수도 있다.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뾰족한 대안 없이 늘어가고 있는 미 활용 폐교를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경우,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지역을 친환경적인 생기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예술 진흥 방안으로서의 정부의 폐교 활용

1)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진흥 방안의 당위성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 자체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창작된 예술 작품이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수용자 측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중에서 특히 창작 활동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창작 활동 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과 창작 환경을 조성해주는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달 및 수용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왜냐하면 그 지원 방식이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간에 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의 여부는 전달과 수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창작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문화예술을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보고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담론이 가능한 것이다.

바야흐로 오늘날은 문화예술이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때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순한 지원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꾸준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폭 넓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즉 예술가들의 창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통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예술에 대한 창작의지가 자연스럽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활동이 다 그렇겠지만 개인적 역량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겉으로 보기에 예술작품의 완성이 한 개인 예술가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완성은 진정한 감상자를 만나 서로 소통하고 같이 호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예술은 작가의 개인적 고뇌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와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가 개인의 역량과 의지 외에도 사회적 맥락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예술가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생활여건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예술가가 창작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인정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여건의 조성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2000년도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7> 예술인과 예술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1997년 조사	2000년 조사
풍 족	3.0	3.4
보 통	8.4	11.7
부 족	88.5	84.8
계	100.0	10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0

같은 기관에서 1997년과 2000년에 각기 실시한 이 조사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과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1997년에 비해 2000년 다소 증가한 것을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조사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 85%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표시되어진다.

이밖에도 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87.4%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경제적인 보상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0.3%의 답변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술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62.4%에 해당하는 예술가들이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고려할 때, 예술가들의 경제적 상황을 일견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8> 예술 활동 만족 이유

(단위 : %)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87.4
사회적인 인식이 좋기 때문에	1.1
자신의 예술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때문에	10.9
경제적인 보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0.3
기타	0.4
계	100.0

<표 9> 예술 활동 불만족 이유

(단위 : %)

외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하기 때문	11.1
사회적인 인식이 나쁘기 때문	8.6
자신의 예술능력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13.5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62.4
기타	4.4
계	100.0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조건은 아마도 작품의 창작공간과 제작된 작품을 안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창작 공간 확보라는 예술 창작 활동에서 최소한의 조건마저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작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처럼 예술 공급자가 사라지게 되면 수용자의 측면에서는 문화향수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점차 문화예술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농어촌에서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오던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문화에 많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이 숨 쉬고, 예술가와 감상자간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거듭나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될 때일수록 농어촌 지역의 폐교와 그 활용성에 대해 고민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꾀하는 방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

로 거듭나게끔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모색돼야 할 때이다. 폐교가 새로운 문화예술의 보금자리로 지역에서 다시 소생한다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취약했던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권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 된다면 지방의 농어촌 문화의 발전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폐교를 활용한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은 우리시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대안적 속성을 갖는 새로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폐교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소외받던 농어촌 지역을 문화예술의 활기가 새롭게 감도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도 전국 각 지역에서 늘어가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그것이다.

2) 정부의 폐교 활용 촉진 방안

늘어만 가는데다가 심지어 방치되다시피 하는 폐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 개정하여 2001년에 다시 발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둘 모두 폐교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방안들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늘어나는 폐교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폐교와 폐교재산에 대한 개념 정의

§ ‘폐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 하던 시설 기타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 폐교재산활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폐교재산활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폐교재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폐교재산의 자체 재활용에 관한 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 대부 등에 관한 특례

§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영구시설물의 축조

§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대부 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교재산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999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6618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17115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 다.

1. 폐교재산활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 간의 협력 사업의 지원
3.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② 교육감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다 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3.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홍보
5. 국내외의 폐교재산활용 사례연구
6.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通學區域) 또는 중학구(中學區)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
5.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6.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② 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 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⑤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문을 닫기 전까지의 학교는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이러한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또한 2004년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였다. 이 기본계획안은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유지 관리, 대부, 처분 및 자체 재활용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폐교의 재산 가치를 높여 자체수입을 증대하며, 미활용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폐교재산의 건전 활용 추진.
§ 관계법령의 엄정한 준수를 통한 폐교재산의 대부 및 처분 시 위법부당행위 및 공유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배제.
§ 도서벽지 등 지리적으로 활용이 곤란한 위치에 소재하여 다년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늦었지만 정부의 관계부처가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은 무척이나 환영할 만하다. 정부의 학교 통·폐합의 조치에 따라 1982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폐교는 마땅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폐교를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는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별법이나 시행령, 또는 교육부가 마련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마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폐교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계는 지금 총·칼 없는 문화전쟁을 하고 있다. 지역과 지역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폐교 활용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그에 대한 구체적 실행이 문화예술분야에 맞추어 진다면 여러 현실적인 효과를 일구어낼 수 있다.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예술 공간으로의 새로운 탄생은 그동안 문화사각지대라 불리는 문화소외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잃어버린 문화예술의 활기를 되찾는데 많은 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의 문화가 새롭게 꽃필 수 있게 만드는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현실적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그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기반을 다지며 저변을 확대하는 지원 방식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작가의 창작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봤다. 문화예술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작가들의 창작 공간인 작업실 확보의 심각한 문제를 폐교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3.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 및 조성목적

1)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개념 정립이 되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핵심용어인 'art'를 '미술'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인 '예술'로 확대시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무용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일정정도 개념화되어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

적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예술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여 그들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예술의 일선 현장에서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작가에게 미술창작스튜디오와 같은 작업실은 작품이 나오기까지 창작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작가에게 작업실은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창작의 터전인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작가들에게 작업실 마련은 분명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창작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 여건인 공간 마련이 어렵다보니 안정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창작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창작지원 방식은 전시회나 창작 프로젝트 등에 직접 지원하는 형식을 띄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방식은 순간적인 가시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경제가 어렵다든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문화예술은 경제논리에 쉽게 뒷전으로 밀려나 이러한 지원마저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지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지원방식으로는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창작지원 방식도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살려내는 예술창작 활동의 기본적 여건과 토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예술창작활동의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작가의 작업실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의 예술지원 방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의 차이만큼이나 외국과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도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주로 물리적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반면, 외국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국내외

의 문화와 예술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자극을 받음으로써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통해 예술의 지평을 확대시키고 있다. 프로그램 면에서 외국이 우리의 경우보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역할의 차이만큼이나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용어와 개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영어권을 대표하는 미국에서는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주로 'Artist Community', 'Art Colony', 'Art-in-Residence'라고 부른다. 이들은 규모나 형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개념은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ACC(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y, 창작실 연합)는 이들의 개념을 "일정한 기간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곳"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독일 베를린의 RES ARTIS(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s Centres and Networks, 국제창작실프로그램협회)의 정의는 "특별히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는 작업실 및 조직과 더불어 독립적인 단위체로서의 경영"을 의미한다.

서양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된 대만과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는 "예술촌(藝術村)이라는 모호하고 다원적인 개념을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으로 "각 나라의 문화적 교류와 대만문화의 체험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창작마을", "미술스튜디오", "예술인촌", "아뜰리에", "집단창작촌" 등 그 용어가 아직 확실히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에서 규정한 '미술창작스튜디오'와 '미술창작실'의 조성목적을 통해 이들의 개념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 국가별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정의

국가별	관련용어	정의
미국	Artist Community Art Colony Art in Residency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 (AAC기준)
독일	Res Artis	특별히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는 작업실 및 조직 뿐 아니라 독립적인 단위체로서의 경영
대만	예술촌(藝術村)	각 나라의 문화적 교류와 대만문화의 체험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 (TAV기준)
한국	창작마을 미술스튜디오 예술인촌 아뜰리에 집단창작촌	§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작업 및 발표기회의 확대를 통해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초·중·고교생들과 주민의 예술체험 및 작품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 주변의 문화 공간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킴 (문화관광부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목적) §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창작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함 (문예진흥원 '미술창작실' 조성목적)

* AAC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
* Res Artis - 국제 창작실 프로그램 협회
* TAV - Taipei Artist Village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참조

2)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조성 목적

우리나라의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대부분 작업실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에게 무상 또는 약간의 임대료를 받고 일정기간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주된 이유도 창작 공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미술창작스튜디오와 흡사한 성격의 자발적 집단창작촌 역시 작업 공간 확보라는 절실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비영리적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작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창작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창작 공간 마련과 더불어 창작스튜디오는 예술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욱 나은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작가와 비평가들 그리고 감상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선한 자극과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는 우리 실정에 맞는 뚜렷한 프로그램이 없어 그저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류와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히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서로간의 교류를 가장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유럽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이는 작가에게 작업공간과 더불어 숙식이 가능한 거주공간을 내주어 일정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숙식시설을 확보한 창작공간이 집단화될 경우 결국 장단기 체류가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이 함께 확보된 형태의 스튜디오는 자국내의 작가들의 교류뿐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개인 작업실 제공이라는 일차적인 목적보다는 “교류”와 “소통”이 보다 중요한 목적과 기능이 된다.

이와 같은 교류와 소통은 예술가들 간의 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과의 교류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 속에서 고립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호흡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기능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회,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예술을 감상하고 다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미술 담론의 생산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Ⅲ. 국내외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현황

1. 해외의 창작스튜디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보 등 해외국가의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우리의 경우보다 그 역사가 한층 오래되었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체계적인 운영계획 하에 개성적인 특성을 가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은 약 70여개소의 창작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4,000명의 작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이는 창작실 연합(ACC)이라는 조직으로 결성되어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과 더불어 가능한 한 많은 재정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또한 약 30여개의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은 1666년 프랑스에서 루이 14세에 의해 시작되었다. 루이 14세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로마대상(Prix de Rome)의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이탈리아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와 로마의 빌라 메디치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방식에 힘입어 이후 다비드, 앵그르 그리고 음악가인 드뷔시 등이 그들의 예술적 영감을 키워내고 성취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초기의 창작스튜디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예술계의 현실적 상황과 작가들의 작업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가며 발전해왔다.

오늘날 해외의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것, 작가의 문화적 체험과 창작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자국의 현대미술을 국제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것,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것, 도시 계

획 구도 내에 설립한 것, 미술이론 및 비평, 전시 기획을 위한 것, 뉴미디오 창작 개념의 변화를 위한 것, 레지던스 네트워크를 위한 것 등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되어 있다.

<표 11>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	명 칭
프로젝트 실현	팔레드 도쿄, Le Pavillon
국제교류를 통한 자국 작가들의 창작 지원	프랑스 AFAA
자국 현대 미술의 국제화	스웨덴 IASPIS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지원	일본 CCA 기타큐슈, 일본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마을
도시계획 및 도시 발전	일본 교토아트센터
미술이론 및 비평, 전시 기획	네덜란드 DE Appel, 프랑스 Magasin
뉴미디어 창작 및 연구	독일 ZKM
레지던스 네트워크	독일 국제아티스트 아트센터 네트워크협회 (Res Arits)
지역문화특화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	일본의 AIR(Artists-in-residence) 프로그램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라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을 각기 대표하는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프랑스

①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의 르 빠삐용 (Le Pavillon)

파리에 있는 '팔레 드 도쿄'는 현대적인 창작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듯이 현대미술의 실험을 통해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팔

레 드 도쿄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디렉터에 의해 독립된 형태로 따로 기획되고 관리된다.

팔레 드 도쿄의 르 빠삐용에서 실행하고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일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매년 프로그램 디렉터가 지정한 프로젝트에 세계 각국의 젊은 작가들이 신청하고 선발되어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협동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평론가들도 참여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비평적 쟁점을 부여하도록 돕기도 한다. 즉 예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② 아파 (L'AFFA, 프랑스예술진흥협회)

프랑스 외무성 소속의 프랑스예술진흥협회(L'AFFA)는 자국의 미술을 지원하고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제교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곳의 프로그램은 성격상 다른 문화의 체험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라파는 자체적으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고 자국의 작가들이 타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풍요로운 창작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의 결과로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에 대한 작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아파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에서 '빌라 메디시스(Villa Medicis)' 프로그램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국제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초청된 작가는 향후 창작활동에도 탄력을 받아 중요한 경력으로 자리매김 된다.

③ 니스의 빌라 아르송 (Villa Arson)

남프랑스의 니스에 위치한 '빌라 아르송'은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할 뿐만 아니라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빌라 아르송은 다른 지역 미술계와의 활발한 교류로 입주 작가들에게 자신의 작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명도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튜디오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각 도시의 미술학교나 대안공간과 잘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지역 미술학교의 학생들과 지역의 작가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술적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여 창작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간략하게나마 몇 곳의 스튜디오를 살펴봤지만, 이밖에도 프랑스에는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들이 많다.

프랑스의 '마가쟁(Magasin)'은 네덜란드의 '데 아펠(De Appel)'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큐레이터를 훈련시키는 큐레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진 큐레이터들은 국제 미술계의 흐름을 좀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 미술계의 전문가 및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향후 활발한 전시 기획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스튜디오라고도 불리고 있는 쿠르쿠엥의 '르 푸레누와(Le Frenoy)'는 프랑스 문화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뉴미디어 중심의 미디어 아트 교육기관인 동시에 변화된 창작스튜디오이다. 즉 기존의 창작스튜디오와 학교시스템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현대미술창작스튜디오인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창작스튜디오의 모습을 띠고 있는 르 프레누와의 경우는 뉴미디어 아

트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즉 기존의 창작스튜디오 형식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 실험적인 예술 정신이 추구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창작스튜디오를 처음 시도했던 불과 몇 년 전보다는 인식 전환이 꽤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실험적인 예술 정신이 가능한 프랑스의 문화적 기반이 부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문화적 기반은 국가의 저력으로 자리 잡아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선진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2) 미 국

① P.S.1. 현대미술센터 (Contemporary Art Center)

1971년에 뉴욕시 롱아일랜드의 폐교였던 공립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현대미술작가들을 위한 스튜디오로 재탄생한 P.S.1. 현대미술센터는 현대미술만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대안미술공간의 모범적 사례로 많이 거론되는 곳이다. 그러나 P.S.1.이 위치한 지역은 현대미술센터로 개관되기 이전에는 범죄 다발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었다. 그랬던 지역을 예술로써 다시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여 범죄가 일소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미술인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미술관으로 바뀌어 관광명소로도 손꼽히고 있다.

P.S.1.은 1976년부터 해외작가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P.S.1.과 재단, 해외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1986년부터는 미술가들이 주도하여 학생에서 성인은 물론 가족단위, 미취학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 대중에게 현대미술의 이해와 감상의 폭을 증진시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및 홍보, 재원 개발과 조성, 교육, 재정계획 및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의 공동체의식은 물론 공동체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도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치되다시피 해서 점점 흉물화되어 가는 폐교처럼 지역의 정서 역시 피폐해져가는 곳에 예술로써 생기가 감도는 지역으로 변화를 꾀한다면 지역의 정서는 물론 문화 역시 발전하여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VSC, Vermont Studio Center)

예술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보려는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이하 VSC)는 미국 버몬트 주의 북쪽에 있는 존슨 마을이라는 전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여 작가들은 한동안 세상과 떨어져 예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VSC의 입주 작가들은 자연스레 마을과 접촉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1984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여름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988년부터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VSC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해마다 600여 명의 전 세계 미술가, 문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개 20% 정도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온 예술가들로 채워진다. 그리고 그동안 VSC를 거쳐 간 많은 선배 예술가들이 액수에 관계없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VSC를 지원하여 '예술가가 지원하는 예술가'라는 VSC의 목적을 추구해가고 있다.

VSC가 위치한 입지 조건은 우리나라의 폐교가 위치한 입지 조건과 비교해 볼 때 전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재 VSC는 우리나라의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와 비교해서 기본적 생활여건이 비교 우위에 있다. 하지만 VSC 또한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비된 조건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도 희망을 가져봄 직하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정립과 더불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매트리스 팩토리 (Mattress Factory)

매트리스 팩토리는 1977년 폐업한 매트리스 공장을 개조하여 예술가들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매트리스 팩토리는 기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작품이나 유물을 단순하게 전시하는 장소가 또는 화랑과 같이 작품이 단순히 매매되는 장소가 되기를 거부한다. 매트리스 팩토리는 무엇보다 작가의 창작활동 자체, 작품 제작의 의도, 예술적인 순수한 정신활동 등을 중시하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실험적인 장으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매트리스 팩토리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풍부한 경력의 직업 예술가들이 몇 달간 모여 예술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통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매트리스 팩토리의 장소성이 반영된 설치미술작품을 주문하고 전시하는데, 각각의 설치미술작품들은 일반인들이 작품을 직접 보게 되는 장소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도 이곳에서는 제작 장소가 전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작품이 제작되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인 특징으로 매트리스 팩토리는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서 예술과 창조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실험적인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관람자들 역시 전통적인 미술관 환경에서 벗어나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다가가고 그 경험을 성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밖에도 미국에는 다양한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야도(The Cooperation of Yaddo)는 예술가들이 아무런 간섭이나 방해 없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창조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00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회화와 조각은 물론 문학, 작곡, 공연예술, 영화, 사진 등의 예술가들에게까지 열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대의 문화 도시 중의 하나인 뉴욕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아트 오마이(Art Omi)는 창작이 정치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는 지식과 이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미술가, 문학가, 음악가 등의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트 오마이는 연중 내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현대조각 공원인 'The Field'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예술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예술인들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의 예술관(藝術觀)을 나누면서 고민하며 예술에 대한 지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교류 역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3) 독 일

①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Schloss Solitude Akademie)

독일의 대다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고성(古城)이나 별장과 같은 고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역시 1763년에 후기 바로크 양식으

로 건축된 칼 유겐 공작의 여름 별장을 활용하여, 슈투트가르트 주정부에 의해 1990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입주 작가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환경을 체험하면서 국경과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학문이나 예술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아카데미에는 건축이나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꼭 실천적 작업을 하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론가나 학자들의 입주도 가능하다. 예술과 과학, 산업이 더 이상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과학과 비즈니스 분야의 재능 있는 젊은 과학도와 경영자들을 초청하여 포럼이나 세미나를 운영하기도 하며, 폭넓게 형성된 지적환경 속에서 예술가들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들은 쾌적한 창작 환경 속에서 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성장에 중요한 기틀을 다질 수 있고, 타 분야 역시 기술적 혁신이나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② 칼스루헤의 미디어아트센터 (ZKM)

ZKM은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세계 3대 미디어랩으로 유명한 시설로서,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예술개념에 따라 기존의 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설계됨으로써 미술관 건축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아트 전문 전시장과 현대미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히려 미디어아트의 비물질성과 무한 복제성을 감안하여 저작권을 보유함으로써 컬렉션 개념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술관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도 작업실의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작가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와 미디어기술의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와 기술 등을 협조하고 있다.

③ 베를린 'DAAD Berliner Kunstlerprogramm'

독일학술문화진흥재단(DAAD)에서 운영하는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베를린 의회와 독일 외무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시각예술은 물론 영화, 문학, 음악에 종사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초청 물망에 오르며 개별적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초청 작가들에 대한 심사는 국제미술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DAAD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청 작가로 선정된 이들은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④ 베를린 베타니엔 (Kunstlehaus Bethanien)

DAAD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국제미술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작가들 가운데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를 선정해서 창작 여건을 뒷받침하는 베를린 베타니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독특하게 큐레이터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큐레이토리얼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과 재정적 협력 등 큐레이팅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전통적인 느낌과 첨단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예술을 소통시키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과학이나 비즈니스에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지명도를 지닌 유망한 작가들을 초청하여 자국의 예술가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독일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은 이러한 교류와 소통을 더욱 더 확대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미술창작스튜디오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제 레지던스 아트센터 네트워크 협회(Res Artis)를 만든 것이다. 이 협회는 미국의 창작실연합(AAC)과 더불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국제적인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주요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교류와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등은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영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국내 대부분의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그 지원의 정도가 약하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처럼 국제적 교류나 네트워크 구축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지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어 있으며, 스튜디오의 운영 현황 또한 몇몇의 소극적 프로그램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비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법적·재정적 뒷받침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일 본

① 교토아트센터

교토아트센터는 도심에 있던 폐교인 메이린 초등학교를 개조하여 1993년에 설립됐다. 1869년에 개교한 이 학교의 건물은 건축적 구조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 이러한 고건축물을 잘 활용하여 세워진 교토아트센터는 미술뿐 아니라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일분문화를 주제로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작가

에게 비평가나 큐레이터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토의 문화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며, 교토를 널리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아쿠스 프로젝트 (ARCUS Project)

1991년 10월 이바라키현 남쪽에 동경예술대학의 새로운 캠퍼스가 들어서게 된 것을 계기로 지방 정부가 이 지역의 예술적 잠재력을 육성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1995년부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쿠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쿠스 프로젝트는 특히 지역사회와 미술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지역에서의 예술가의 자기계발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술가들의 워크숍이나 강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까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있다. 즉 지역사회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젊은 작가들이 지역문화를 접하는 가운데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술 감상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쿠스 프로젝트는 젊은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입주 작가들이 워크숍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현대미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들이 현대미술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아트 세미나를 운영하고, 학생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연결한 인턴쉽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③ 시가라키 도예문화공원 (Shigaraki Ceramic Cultural Prak)

일본에서 유서 깊은 도예 문화 지역인 시가라키는 1990년에 지역의 도자기 산업과 결합된 도예문화공원을 만들었다. 이 도예문화공원이라는 전문시설이 아트스튜디오로 전용되어, 일본 및 해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도예공원에서 거주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예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도예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창작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명한 도예가, 예술가, 비평가 등을 초청하여 강연과 전시회 등을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시가라키 도예문화공원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지역 산업과 결합된 문화와 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도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도예의 전통 기술을 알리고 현대적 산업 도예로 끌어올리는 데도 공헌하고 있다.

일본의 창작스튜디오는 폐교를 재활용한다든지 지역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관돼 있다든지 하는 것처럼 지역과 깊은 관련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하기 위해 AIR(Artist-in-Residency)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본 전역에서 10여 곳을 선정하고 3~5년 동안 집중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계되어 지역 개발 및 경제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도자기, 종이공예, 인쇄, 텍스타일, 유리공예 등 지역의 특화된 전통예술을 현대문화산업화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밖에도 예술가 주도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레 형성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역시 확대되어 문화와 예술을 교육하는 역할도 이루어졌다.

일본 창작스튜디오의 사례는 한국 미술계의 현실적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토아트센터의 경우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아트센터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폐교 활용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건설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른 사례들 또한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 수준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발함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한다면 지역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지역 개발 및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의 창작스튜디오

문화와 예술이 발전한 몇몇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자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다소 늦긴 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국내 스튜디오의 경우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미술만이 아닌 연극, 음악, 전통문화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창작스튜디오가 이미 전국에 산재해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와 같은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꾀하고, 작가들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예술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튜디오들은 창작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작가들의 자구책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스튜디오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작가가 직접 거주하는 주거형과 거주하지 않은 비주거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과의 연계성에 따라 연계형과 비연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도 폐교 등의 유휴시설을 작가가 임대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2004년 경기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작업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기로 한다.

<표 12> 경기도內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

순번	스튜디오명	지역	유형				비고
			작가	지역	건축물	시설	
1	왕곡천예술인마을	의왕시	주거형	연계형	무허가형	임대활용형	축사개조
2	문화예술촌 쟁이골	화성시	주거형	비연계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폐교활용
3	안성문화마을	안성시	주거형	연계형	허가형	위탁경영형	폐교활용, 건물신축
4	비닐하우스 AA	고양시	비주거형	비연계형	무허가형	위탁경영형	비닐하우스
5	양동미술연구소	양평군	비주거형	연계형	허가형	위탁경영형	폐교활용
6	국악한수	양평군	주거형	연계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창고개조
7	아름다움만들기	가평군	주거형	생활밀접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폐교활용
8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여주군	주거형	연계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폐교활용
9	현대도예문화원	가평군	주거형	연계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폐교활용
10	우음도 생태문화학교	화성시	주거형	생활밀접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폐교활용
11	창문아트센터	화성시	비주거형	생활밀접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폐교활용
12	밀머리미술학교	여주군	비주거형	지역연계형	허가형	임대활용형	폐교활용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각 시나 군의 지역을 기반으로 곳곳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스튜디오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튜디오가 안정적으로 지속·운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다.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애써 만들어낸 창작스튜디오중 무허가 건물들은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해 있으며, 폐교를 비롯한 유휴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둘쭉날쭉한 계약 내용에 따라 그동안 정성을 쏟아부은 모든 활동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무허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왕곡천예술인마을과 비닐하우스 AA는 설립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니고 있으며, 현대도예문화원은 1년 단위로 공간사용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예술 작업에 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밖에도 밀머리학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매칭펀드기금을 확보해 놓고도 정작 지자체에서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동미술연구소는 입주 작가에게 어떠한 통보도 주지 않은 채 고추장·된장 담그는 체험프로그램 용도로 공간 활용 계획이 바뀔 뻔 했다.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창문아트센터 또한 폐교의 운동장이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으로 전면적인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기반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라면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위태롭다. 갖가지 불안요소와 위협요소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을 장려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생겨난 스튜디오마저 위협받는 현실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스튜디오의 운영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3> 국악한수의 현황

위 치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19번지
설립년도	·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에 소재한 석장초교였던 폐교를 임대하여 1994년부터 3년 동안 운영 · 지역주민의 소음 호소 관계로 장소를 이전하여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양동면 금왕리 소재의 폐업한 양어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운영 · 장소 협소와 냉난방의 시설 미비로 운영진과 회원 모집, 대대적으로 투자 기금을 마련하여 부지 확보와 건물 신축 및 개보수를 해서 2003년 7월 26일 정식 한수문화원의 개원식을 갖게 됨.
특 성	전통문화창작스튜디오, 전통문화체험교실
주요시설	강당2동, 식당, 야외휴게실, 숙박시설
설립목적	전통문화의 보급과 저변확대
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전통문화전문가연수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작가	최원산, 박한아름, 박세라, 이옥숙, 정향희미, 박찬종, 남기문, 박건영
공간운영	투자자 공동 소유부지에 세워진 창고형 창작공간 / 연간 임대료 40,000,000원 납부
전 경	

1) 국악한수

양평 양동면 금왕리에서 국악을 전수하고 있는 '국악한수'는 지역 문화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전승해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1994년에 창단되었다. 이곳에서 어렵사리 처음 풍물을 익힌 1기수에 해당하는 선배들 중 상당수는 국악전문예술인이 되어 후배들에게 자신이 익힌 국

악을 전수하며 자연스레 순환되는 형식을 갖추어, 적어도 교육적인 운영상에서는 비교적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

10여 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정성이 열매를 맺어 국악 분야에서 양평 지역의 청소년들이 대통령상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민속놀이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가능하도록 설립된 사물놀이 후원회인 '백운회'는 지역 초·중·고교에 악기를 보급하고 풍물패의 창단을 돕는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 양평군은 현재 군단위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물놀이 및 국악팀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7년에는 '경기도 백운사물놀이 겨루기'라는 사물놀이 대회를 유치하고, 2000년에는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을 양평군에 있는 용문산관광단지에서 펼치기도 했다.

국악한수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계승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대안학교는 국악뿐만 아니라 미술과 연극, 영화 등 타 장르의 예술도 함께 공존하여 이른바 종합예술 대안교육의 장으로 지역 속에서 굳건히 자리 잡도록 힘쓰고 있다. 이에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양평군 문화예술교육협의회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이룬 괄목할 만한 성과와는 달리 공간적인 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악한수가 처음에 자리 잡은 석장초등학교는 폐교가 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업이 진행되려고 했다. 이를 가까스로 설득하여 임대는 할 수 있었으나, 임대 재계약을 할 때마다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과 개인 목적의 용도 변경으로 여러차례 재계약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관계부처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업설명회를 수차례 하는 등 힘겨운 설득작업 끝에 군청으로부터 임대받아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습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으로 공간을 공방문화원으로 넘기고 국악한수는 양평의 개군면 상자포리로 옮겨야만 했다. 그곳은 한적한 만큼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국악한수 대표인 박건영씨의 사비를 털어 연습과 숙식을 해결할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길을 내고 건물을 지어 어렵게 마련된 이 공간 또한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다는 토지소유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빚만 지고 하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현재의 장소에 창고를 개조하여 새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상기한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국악한수를 위협하는 요소는 산재되어 있다.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가 그 첫 번째 요소이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국악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은 비단 국악한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돼야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표 14> 문화예술촌 쟁이골의 현황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2리
설립년도	1997.7.1
특 성	문화예술체험 캠프시설
주요시설	대강의실 120명, 중강의실 60명, 세미나실, 극기훈련, 캠프화이어장, 산악모험코스, 체험학습장, 노천교실, 숙박시설150명, 식당 150명,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도자기 가마작업실, 쉼터
설립목적	하늘,땅, 바다, 문화예술, 공동체의 경험 제공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농촌체험, 자연생태체험, 예술문화체험, 전통먹거리체험, 야영, 장애체험 등
참여작가	백운지, (사)문화마을들소리, 이상헌, 김은미, 김석환, 최병두, 이강식, 신천희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12,000,000원
전 경	

2) 문화예술촌쟁이골

1932년에 설립되어 꽤 긴 역사를 지닌 화성시의 함산초등학교 또한 다른 폐교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1995년 문을 닫았다. 이후 2년 동안 방치되어 온 이 학교는 1997년에 김명훈·강연숙 부부에게 임대되어 '문화예술촌쟁이골'로 다시 태어났다. 처음 2~3년 동안은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하늘, 땅, 바다, 문화예술 공동체' 등 주로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이곳에 정착한지 만 8년이 다 되어가는 부부는 이제 어엿한 이 지역의 주민

이다. 부부는 문화예술촌쟁이골이 들어서서 누구보다 마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예전엔 우범지역으로 여겨져 접근도 하지 않던 이곳이 다시 되살아나자 너무들 좋아해요. 가끔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도 받을 정도에요.” 이곳에서는 지역예술 발전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는 ‘단봉예술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찾는 사람들만 어림잡아 한해에 1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게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강연숙 원장은 말한다. “이곳이 지역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협조가 절실해요. … 그리 큰 이익을 생각하고 이곳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처럼 도내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학습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도시인들도 보다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폐교를 활용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그렇듯이 설립될 당시에만 시설에 관한 투자가 이루어질 뿐, 이후의 운영상에서 필요한 비용은 전적으로 입주 작가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처음에는 작가들이 사비를 들여서 해결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빚만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계부처의 일관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 15> 밀머리미술학교의 현황

위 치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262-1
설립년도	2002. 7. 1
특 징	문화예술체험학교 / 생태문화체험학교 / 장애우 문화체험 교실
주요시설	철근 콘크리트 건물 : 세미나실, 야외체험마당, T셔츠공방 등
설립목적	변화하는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의 집합이며 새로운 실험의 장이자 교육과 생산의 기지가 됨.
프로그램	Art Camp, 따뜻한 왼손, 자유캠프, 시각문화예술체험교실, 방학캠프 학교연계프로그램, 장애우 프로그램 등
참여작가	박찬국 교장 외 전문 강사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27,000,000원
전 경	

3) 밀머리미술학교

앞으로는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을 끼고 뒤로는 오갑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의 밀머리 마을은 밤하늘에 별이 많아 별서리로 불리우다 구전되어 밀머리가 됐을 정도로 너른 들과 높은 하늘을 지닌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특히 충주, 원주, 여주가 이어지는 삼합지역인데다 30년 전에 당진교가 생기면서 교통이 더욱 좋아져 인구 유출이 크게 늘어 결국 1996년 점동초등학교 당현분교가 문을 닫게 됐다. 폐교이후 이곳은 한때 여주학생수련원으로 활용됐다가 2002년에 공공미술가인 박찬국씨에게 임대되어 다양한 실험적인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10여 년간 공공미술가로 활동했던 박찬국씨와 그의 뜻에 공감한 30~40대의 젊은 예술가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복지시설에 있는 정신지체 어린이들과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참여시킨 '따뜻한 왼손'이라는 프로젝트는 점동고등학교 학생들과 미술대학 학생들의 봉사활동까지 보태져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중에는 이별을 아쉬워할 정도로 서로가 느낀 뜨거운 감정은 쉽게 식지 않았다. 이밖에도 먹거리 생산조합인 '한살림' 회원들이 이곳에 들어와 문화예술교육은 물론 유기농 재배법을 보급시키고 있으며, 민간 연극단체인 '금수강산'도 풍물교실과 연극교실을 운영하면서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또한 여주지역문화예술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문화예술 연대인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과의 노력과 정성과는 달리 지방행정기관들의 반응은 아직도 시원치 않은 상태다. 밀머리미술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는 물론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행정기관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국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자치단체인 여주군이 폐교를 창작스튜디오로 조성하는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아주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문화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열의는 그리 크지 않았고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해나가야 했죠"라고 하면서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첫해 겨울에는 낡은 건물을 보수하느라 사비를 털어가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단다. 그는 한창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에 대해 "주민과 문화단체, 행정기관이 뭉쳐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문화와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때 주민들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게 될 테니까요"라고 말하며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표 16> 아름다움 만들기의 현황

위 치	가평군 가평읍 개곡2리 562-2
설립년도	2002. 1. 1
특 징	장애우를 위한 문화예술체험공방
주요시설	문화예술작업공방, 작품전시실, 천연염색 체험장, 유기농 배움터
설립목적	장애우들의 숨어있는 소질의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 이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며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만듦.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서예, 전통소목 생활공예, 천연염색), 유기농체험, 마을축제
참여작가	권영환, 이혜화, 박효선, 유승진
공간운영	교육청과 1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147만원
전 경	

4) 아름다움만들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명지산(1267m) 군립공원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움만들기'는 가평군 가평읍의 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서예,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예술체험뿐 아니라 유기농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아름다움만들기의 권영환 대표는 이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여 이제는 마을 사람이 다 됐다. 그는 그곳에서 장애우들의 생태문화공동체를 꿈꾸고 있으며, 그의 꿈이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이 곳을 생활친화형문화공간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각종 난개발로 훼손될까 하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연과 공존하는 방안을 부단히 모색하는 아름다움 만들기의 모습은 빛을 발한다.

<표 17> 안성문화마을의 현황

위 치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53-3
설립년도	2001. 10
특 성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
주요시설	도예작업장, 조각작업장, 회화작업장, 도자기 전시장, 세미나실, 작가숙소 등
설립목적	다변화된 현대미술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으며,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지평을 형성함.
프로그램	· 안성청소년 문화예술체험 캠프 · 찾아가는 학교연계 미술강의 · 안성문화마을 작가 기획전 · 내방인을 위한 미술체험 교실(수시) ·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작가	유승렬, 홍성봉, 한병희, 김효기, 김경래, 권용철
공간운영	교육청으로부터 안성시에서 임대하여 안성시 미협으로 경영위탁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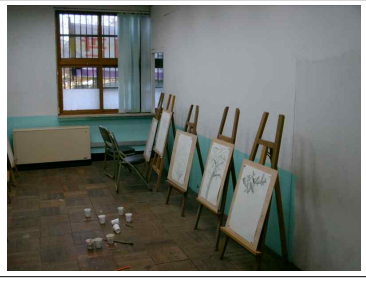
5) 안성문화마을

안성문화마을은 1996년에 폐교된 금광초등학교 대문분교를 활용하여 2001년에 도자기, 조각, 회화 등 지역미술작가들의 창작공간과 지역주민들의 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났다. 1996년에 대문분교가 폐교가 됐을 때도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은 식지 않아 문화의 장으로 되살리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1년도에 시가 교육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내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되어 현재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찾아가는 미술강의', '안성문화마을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문화마을작가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이곳을 찾는 단체나 인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곳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렬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문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다른 창작공간들에 비해 임대료 걱정이 덜하다는 점에서는 감회가 크지만 문화마을 운영을 입주작가들이 자체적으로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까스로 꾸려가고 있지만 문화마을의 설립취지도 살려야 하고 재정적 자생력도 확보해야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네요." 즉 운영상에서 빚어지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성문화마을의 힘찬 도약을 위해 유승렬 원장은 "앞으로 문화마을을 차별화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성의 문화관광 활성화 비전과 어우러져 중부권의 문화명소, 전국의 모범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

<표 18> 양동미술연구소의 현황

위 치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630-7
설립년도	1995년 전후
특 성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 시각예술체험교실
주요시설	작가개인창작스튜디오와 실습실
설립목적	개인의 창작 활동에 매진하면서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 특히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지역주민대상 미술체험프로그램
참여작가	최석운, 장원실, 김남진, 이인,
공간운영	양동면에서 임대하여 경영위탁함 / 임대료 없음
애로사항	양동면과의 공간운영에 대한 의견 마찰
전 경	

6) 양동미술연구소

양동미술연구소는 1995년 양평군 양동면의 한 폐교를 개조하여 시각예술 창작스튜디오로 거듭났다. 이 연구소에서는 입주작가들이 자신의 창작작업에 전념함과 동시에 지역과의 교류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역 속에서 부대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성장기의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

술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자연 속에서 미술과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종종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들의 꾸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등지에서는 이곳이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그는 체험마을로 용도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 한 일이겠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나 발전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새로운 프로그램 영입을 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착해서 한창 성장해가고 있는 창작스튜디오의 방향 설정은 고려하지 않고, 게다가 용도 변경의 어떠한 통보도 없이 면사무소에서 소리소문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언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작가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사무소에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양측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얻어낸 결과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육성함은 물론, 날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데 있어 더 큰 효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면사무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양동미술연구소가 내쫓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표 19> 여주 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의 현황

위 치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625-1
설립년도	2002. 9. 10
특 징	도자예술창작스튜디오, 도자예술체험공방
주요시설	도자체험교실, 도자가마실, 야외조각공원, 도자전시실
설립목적	일상에서 벗어난 조용한 자연 속에서 새로운 도자문화체험교육을 통해 도자예술에 대한 저변확대와 보급함.
프로그램	교원직무연수, 학교연계체험프로그램,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작가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32,000,000원
전 경	

7)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

땅이 비옥하여 품질 좋은 쌀로 유명한 여주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 역시 유명하다. 강천초등학교 걸은분교가 2002년 폐교 되자 이성덕을 비롯한 도예가 20여명에게 임대되어 같은 해 9월에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로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이곳이 도자기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터전으로 바뀐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은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도자기 체험 학습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걸은분교에서 행해진 학습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여서 도자체험학교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에서는 도자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도자문화체험

교실'이라든지 '지역전통예술활동', '여주지역 사회학교 평생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 도자문화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외 도예작가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여주 지역의 도자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다. 여주걸은도자문화체험학교의 이성덕 교장은 "여주가 도자문화로 유명하고 전시공간도 적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도자기 교육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도자기 체험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표 20> 우음도생태문화학교의 현황

위 치	화성시 송산면 고정3리 1290-4
설립년도	2000.
특 징	지역기반 생활밀접형 문화예술 기획공간, 생태체험강의실
주요시설	강의실, 운동장, 숙박시설
설립목적	우음도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역문화관광활성화에 기여함.
프로그램	생태체험프로그램, 우음도보리축제 등
참여작가	최오진 외
공간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2,300,000원
전 경	

8) 우음도생태문화학교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서 4km 남짓 떨어진 작은 섬 우음도(牛音島)는 소 두 마리가 울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 안에 위치한 고정초등학교 우음분교는 1964년에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모든 활동에 있어 마을의 중심이었다고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1994년에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1997년에는 급기야 문을 닫게 됐다. 이 폐교를 안산민예총이 한때 창작공간으로 활용했다가 오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인 이재화씨에게 다시 임대되어 2003년에 현재의 생태문화학교로 거듭나게 됐다. 시화호는 개발을 한다며 자행한 자연환경파괴로 쓰라린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지역환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그 보존가치를 서서히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시화호의 남측간석지에서는 조선후기의 포구, 성의 흔적, 희귀식물 등이 발견되는가 하면,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룡알 화석군이 지역환경전문가의 노력으로 발견되어 보존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화성시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지는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백악기의 고환경과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 역시 크다고 한다.

우음도생태문화학교에서는 현재 '시화호 그린 투어링' 등의 우음도 주변을 탐사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면서 시화호와 우음도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리갈대축제', '우음도 생명희망 당제'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재화 교장은 "시화호는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자연파괴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교육 현장"이라며 "생태학교를 통해 개발의 허구성과 미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당한 포부를 갖고 있다.

<표 21> 현대도예문화원의 현황

위 치	가평군 북면 화악1리
설립년도	20002. 6. 1
특 징	도자예술창작스튜디오, 도자예술체험공방
주요시설	체험교실, 전시실, 도자가마, 숙박시설, 식당
설립목적	청소년의 타고난 재능과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가능성에 도전하며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감.
프로그램	가족단위체험프로그램 / 각종 수련회 및 대학생 M.T 기업체 및 공공기관(단체) 출장강의 /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각급학교 특별활동(CA) 및 특기, 적성교육, 교사교육
참여작가	정충미 원장 외
공간운영	교육청과 1년 단위 계약 / 연간 임대료 15,000,00원
전 경	

9) 현대도예문화원

경기 제일의 고봉인 화악산(1,468m)을 곁에 두고 있는 가평현대도예문화원은 1994년에 문을 닫은 목동초등학교 화악분교를 활용해 도자기와 다도(茶道)가 어울리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깊게 배어 있는 곳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1935년 화악간이학교로 개교한 이후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 따라서 이 학교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애착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세월의 여파 속에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주민들은 이 곳을 마을 문화공간으로 다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가평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했으나 이용률이 부진하자 1년 가까이 방치되다시피 했고, 그러던 차에 박근수·정충미 부부에게 임대되어 2002년에 도예체험과 다도, 전통생활예절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현대도예문화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박근수 이사장과 정충미 원장은 폐허나 다름없는 학교에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시설을 개조하여 현대도예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애쓰고 있다. "가평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는 박근수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들의 모교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너무들 좋아해요. 외지에 있다 고향을 들르는 사람들이 가끔 학교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할 때면 얼마나 뿌듯한 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가평에다 뼈를 묻을 각오랍니다." 부부의 노력과 정성 때문인지 지금 이곳은 주5일 수업에 따른 실기 프로그램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초·중교 교사들과 목동초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민들도 즐겨 찾는 문화예술공간이 되었다. 곁에서 현대도예문화원의 성장을 지켜본 목동초·가평북중의 오홍철 교장은 "현대도예문화원이 생긴 이후 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화악분교가 폐교가 되었지만 마을의 중심으로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것이야말로 폐교가 되면서 붕괴되어가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지역에 다시 활기가 숨 쉴 수 있게 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표 22> 창문아트센터의 현황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 236
설립 년도	2000. 12
특 징	시각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체험공방/지역주민문화센터
주요 시설	철근 콘크리트 건물/전시실/스튜디오/숙소/조각공원/체험교실/자료실
설립 목적	지역기반 생활 밀접형으로 환경친화적 조형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자리잡아감.
프로그램	가족단위시각예술체험프로그램 / 문화농촌체험 프로그램 / 학교연계프로그램 / 레지던시 프로그램 / 허수아비축제, 깃발축제 등
참여 작가	박석윤 외
공간 운영	교육청과 3년 단위 계약 / 연간 38,565,150원
전 경	

10) 창문아트센터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에 위치한 창문아트센터는 1938년 개교하여 2000년에 폐교한 창문초등학교를 임대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다. 창문아트센터는 폐교를 창작스튜디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면서 상호교류를 통해 창작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곳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에

게는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가 들어선 화성시 수화동은 7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창문아트센터의 프로그램들 중에는 농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예술행사 프로그램이 있어 지역을 찾는 이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어 도시인들에게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은 소득 증대를 꾀하여 침체됐던 마을에 활기가 감돌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예술과 신선한 유기농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작가와 지역이 모두 상생하는 아트센터로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역과 공존하며 서로 발전하는 창문아트센터의 활동에 주목하며 폐교를 활용한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역 속에서 어떻게 거듭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Ⅳ.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사례 분석 : 창문아트센터

1. 창문아트센터의 현황

1) 지역여건 및 제반 상황

앞서 간략하게 소개했던 창문아트센터가 자리 잡은 화성시 수화동은 학교 인근 지역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폐교를 둘러싼 1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70여 가구, 약 180여 명이며, 폐교반경 1km 정도에는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창문초등학교가 폐교된다고 했을 때 폐교 결정 자체에 부정적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촌 지역에서 학교란 단순히 학생 교육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서 지역문화의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로 경비 절감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폐교 결정이 내려졌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부분 반대했던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애교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학교가 지닌 지역사회 중심문화시설로서의 상징적 기능의 소멸에 대한 허탈감과 더불어 임대나 매각에 의해 지역의 정서에 반하는 이질적인 문화와 집단의 이입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폐교가 불가피하더라도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중심시설로 학교건물이 재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녀교육과 주민 계몽에 관련되는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 지역사회에 여전

히 기여하는 시설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정서와 바램들은 폐교된 건물을 활용해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폐교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학교가 맡았던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더욱 향상시켜서 지역문화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보완되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도시사람과 농촌사람의 만남의 장으로, 또는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농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창문아트센터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작가의 창작 공간 확보와 이를 통한 작가들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창작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스튜디오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폐교의 시설을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공간 확보
- 예술인들과 상호 교류를 통한 창작 활동 강화
- 지역 정서에 맞는 대안 문화 공간(조형체험학습, 평생교육원 등)으로서의 활용
- 청년 작가 육성
- 지역 문화 활성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창문아트센터는 2000년에 폐교한 창문초등학교를 활용하여 2002년에 재탄생한 곳으로서 지금은 창문아트스튜디오, 환경조형연구소, 자연미술학교, 예절관, 갤러리 시설을 갖추고 지역과 연계된 문화·농촌 체험마을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3> 창문아트센터의 시설 현황

시설 명칭	내 용
창작아트스튜디오	· 개인 작업실 확보와 작가들과의 교류, 작품발표, 세미나, 교양강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 · 전문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을 조성. · 현재 11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고, 매년 1번의 정기전과 2번의 예술제 등 을 통해 그룹, 외부작가 초대전 등을 행함.
환경 조형 연구소	· 문화예술 관련 학술 세미나 · 예술제 · 환경조형물 조성 · 문화 강좌를 통해 대중에게 접근
자연미술학교	· 학교 여건상 정규 교육에서 다하지 못하는 대안교육의 장으로서 전문가 와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조형체험장을 갖추고 있다.
예 절 관	· 전통예절, 전통혼례, 다례, 현대예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갤 러 리	·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실내외 공간.

창문아트센터는 전체 교실 13칸 중에서 9칸은 작가가 활용하고 나머지 4칸은 체험 학습실과 예절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2층 전체는 어떠한 방해요인 없이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1년에 봄, 가을 2차례에 걸쳐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통해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도 식당을 개조하여 만든 창문갤러리에서는 아트센터 정기전 및 지역작가들과의 교류전, 화성시 미협전, 외부작가 초대전,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미술부 전시회, 아동미술 전시회 등 미술작품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창문아트센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작가들은 관내 미술대학교수들의 추천이나 심사위원단의 심사에 의해 선발된다. 이때 신청자는 입주기간 동안 수행할 창작활동의 계획서를 첨부하고, 본인의 작업

경향을 잘 알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카다로그, 슬라이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30세 미만의 젊은 작가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실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작가들을 일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약 3~5인이 선발되고 이들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받는다. 선정된 작가는 1년 동안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창문아트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예술 관련 세미나와 오픈 스튜디오, 경기문화재단을 통한 작품 발표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창문아트센터에는 현재 11명(서양화 8명, 동양화 2명, 조각1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활발한 창작 활동은 물론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입주 작가들은 직장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매일 3~4인의 작가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가 대부분이 주로 주말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집에서 스튜디오까지의 거리는 대략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4> 창문아트센터의 입주 작가 현황

박석윤(서양화)	김원기(서양화)	윤태영(서양화)
김채웅(서양화)	박찬희(조　각)	신명숙(서양화)
김순자(서양화)	강위종(동양화)	손성주(동양화)
이경화(서양화)	이화영(서양화)	

창문아트센터의 박석윤 대표를 비롯한 11인의 작가들은 모두 자신이 배정받은 작업실에서 예술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다. 하지만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은 심각하게는 존폐의 문제까지 발생시킬만큼 현실적인 문제이다.

앞서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폐교를 활용한 대부분의 지역기반 문화예술창

작스튜디오가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경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창문아트센터는 우선 입주 작가들에게 임대료를 비롯한 운경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조달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창문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환경조형연구소를 통해 벽화나 조형물 등을 제작하는 공공 프로젝트 참여로 얼마간의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공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 일반인들의 다양한 체험 학습에 대한 실습비를 받아 운영비용에 충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운영상 빚어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창문아트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 창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트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5개 마을(수화동, 장전동, 문호동, 시동, 수화동)과 경비행장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또한 공룡알 화석지, 남양성지, 제부도 등 화성시에 있는 문화자원과 연계된 각종 예술행사와 농촌문화체험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 루트를 개발하여 외지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등 차별화된 관광시장 형성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가 이렇게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지역과 연계하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것은 지역이 잘 되어야 창문아트센터도 잘 된다는 동반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문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여건은 창문아트센터의 존립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창문아트센터의 존립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창문아트센터가 위치한 화성시 곳곳에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있다. 이중에는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관광명소화 된 데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시피 한 곳도 적지 않다. 지역의 개발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서 자

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존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화호가 개발되는 가운데 빚어진 자연환경 파괴는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창문아트센터는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여건들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창문아트센터의 문화예술적 활동력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개발된다면 지역의 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문화유산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원채 고가이다. 정원채 고가는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주택으로서,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 만이 남아있으나, 원래는 행랑채 등 많은 부속 건물이 있는 제법 큰 규모의 집이었다. 대문간의 상량문에는 광무 8년(1904)에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 안채는 이보다 이른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면구성이나 구조 기법의 변화에서 조선말기 건축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5> 정원채 고가 현황

지정번호	경기도 민속자료 제6호
지정년도	1985년 6월 24일
소 장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529 강석운
현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68번지
시 대	1904년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남이장군묘이다. 이 묘역은 사성(沙城)으로 둘러싸여 있고 봉분 앞에 상석과 묘비, 그 좌우에 망주석 한쌍이 있다. 남이는 세조 3년(1457년) 당시 17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이시애의 난 때 출정하여 용맹을 떨쳤으며, 건주의를 정복할 때도 선봉으로 적진에 쳐들어가 적을 무찔렀다. 이러한 공으로 적기공신 훈일 등에 책록되어 26세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후 예종이 즉위하자 유자광의 무고로 옥사가 일어나 처형되니 그때 나이 28세였다. 그의 묘는 현재 경기도 기념물 1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표 26> 남이장군묘 현황

지정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 13호
지정연도	1973년 7월 10일
소 장	의령 남씨 종중
현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145번지
시 대	조선시대
분 류	묘

다음으로는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동안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신외동 터주가리 당이 있다. 이 신외동은 1리와 2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1리에는 할아버지 당이 있고 2리에는 할머니 당이 있어 매년 음력으로 정월과 10월에 제를 올린다. 신외동 1리에서 5분 정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령 500년이 지났다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아래에 높이 2m 정도에 둘레가 4~5m 되는 터주가리당이 있다. 신외동 도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터주가리당(살륭당이라고도 한다)이다. 아직도 이곳은 집집마다 터주, 성주, 업가리 등을 모시고 있는 집들이 있으며, 집안에서 대·소사가 있어 떡을 할 일이 생기면 먼저 서낭시루를 쪄서 당에 갖다 바친 후에 집에서 떡을 찌었을 만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창문아트센터와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봉땅 자연학교이다. 이곳은 유치부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에 의한 자극과 참여, 발견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미술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체험학습놀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밖에도 도

예실, 서당 등의 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27> 비봉땅 자연학교 현황

학 교 명	비봉초교 유포분교장	설 립 일 자	1960. 6. 26
소 재 지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307번지	폐 교 일 자	1992. 2. 28
부 지(㎡)	4,469㎡	활 용 용 도	문화예술공간
건 물(㎡)	264.2㎡	비 고	

다음으로는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을 들 수 있다. 이 곳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갈대 등 수생식물을 이용하여 자연정화처리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든 시설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면적 314,000평의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이다.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물론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들이 어떻게 서식하는지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공원이다.

<표 28> 습지공원 현황

위 치	경기도 안산시 사동, 본오동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진면 공유수면
면 적	1,037,500㎡ (314,000평)
조성목적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서식지 보호
	수생식물식재 등 자연정화 작용을 통한 수질개선
	자연생태공원조성을 통한 도시민 휴식처 제공과 교육 공간 제공

마지막으로 경비행장과 갈대밭을 언급할 수 있다. 이곳은 77번 국도를 따라 신외동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타나는데, 철조망이 쳐진 담장 안쪽에 시화호 갈대밭과 하늘을 날고 있는 경비행기를 볼 수 있다. 이곳은 환경

감시를 겸하기도 하는 비행 동호인들이 체험학습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는 이와 같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관광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연계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잠재력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장에서는 창문아트센터에서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예술프로그램과 농촌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운영 프로그램 현황

① 예술관련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문화가 최고의 부가가치를 낳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재 세계는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창문아트센터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예술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오늘날의 교육은 그 핵심개념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무한한 상상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적 대안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예술교육이다. 예술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미술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미술가를 육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과 늘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친숙해짐과 동시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창문아트센터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에는 남양초등학교

4·5·6학년의 정규 미술수업을 창문아트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한 학년씩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매체의 다양한 접촉과 자유로운 놀이 개념으로 교육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의식이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잘 그려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하지 못한 설치미술이나 행위미술 등 새로운 장르의 예술형식을 접하게 하고 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도 일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창문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화 실기와 미술 이론 등에 관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상대로 미술학교를 연다든지, 환경설치미술제나 행위미술제, 허수아비 예술제 등의 각종 예술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학을 맞은 어린 학생만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각 분기별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미술의 실천적 작업과 이론적 작업에 대한 강의와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9> 창문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 목	내 용
문 화 강 좌	유화반, 수채화반
	수묵화, 채색화반
	누드 크로키반
	일요 화우회
	가구 미니어쳐 제작반
	현대미술의 이해(이론)
행사 및 이벤트	하계 및 동계 미술학교 개설
	환경벽화 제작 워크샵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어린이 그림 잔치
	체험학습 캠프
	환경 설치 미술제
	추억의 사진전
	불우 이웃돕기 바자회
	오픈 스튜디오
	음악과 미술의 만남
	행위 미술제
	허수아비 예술제
	눈 조각 만들기
환경벽화, 조형물제작	각 대학의 연구소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기획 제작 설치
학술 세미나	각 분기별 전문 강사를 초빙 강의 및 토론의 장 확대
교 사 연 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진행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창문아트센터가 지역 속에 정착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문화예술의

진작과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문아트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환경예술제와 허수아비예술제는 센터의 입주 작가와 협성대학교 조형학부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매년 6월(환경예술제)과 9월(허수아비예술제)에 화성시 농정과 의제 21의 협조로 개최되고 있다.

환경예술제는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인 양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겸손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살아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과 예술을 새롭게 강조하는 친환경적인 예술 행위의 전개는 우리를 새로운 미적 체험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자연을 지배하거나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환경파괴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생으로 나가자는 전망을 예술에서 실천하자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환경예술제는 인간주의인 동시에 자연주의라는 담론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예술제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미술행위를 통해 우리의 문화 속에 그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개 환경미술작가들은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지각과 경험을 중요시한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자아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실험적인 정신으로 예술의 지평을 확장시켜 인본주의를 회복시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술의 소재가 되고, 관객을 예술의 참여자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인간이 처해있는 환경을 지각하도록 하는 현대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경험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미술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미술가들은 지역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 지역미술가와 지역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활성화되고 창작자와 감상자의 미묘한 경계마저 사라져서 모두가 예술을 창작하는 작가요 수준 높은 감상자가 되는 예

술 한마당이 바로 지역에서 열리는 예술제다. 결국 예술제는 지역문화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6월에 열린 제3회 환경예술제의 세부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0> 환경예술제 세부 행사 내용

일 정	프로그램	내 용	참가자
6월 5일	개막식	개막선언, 내빈소개, 작가소개, 축사	참여작가 및 기관장, 주민, 학생
		사물놀이 / 관현악단 공연	남양초교
		다례시범	화성시 예사랑
6월 5일	오픈 스튜디오	스튜디오 관람 및 작가와의 대화	상주작가 및 관람자
	흙의 나라	도자기 빚 /타임캡슐 만들기/흙길 걷기	학생/주민/일반인
	바람의 나라 (설치미술)	폐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설치물	작가/학생/주민/일반인/
		빈 페트병을 이용한 바람개비 설치	작가/학생/주민/일반인/
		오방색 천 30cm를 망에 묶어 바람에 펄럭이게 함	참여자 및 회원
6월 5일~ 6월 27일	깃발전	H:2m70cm/w:50cm 깃발 150점 설치	협성대학교학생 / 회원
6월 5일~ 6월 27일	작품전	유화, 동양화, 조각	센터 상주작가
6월 6일	문화답사	공룡알 화석지 답사	1회(pm : 2시) (신청 접수)

허수아비예술제는 매년 벼농사 수확 기간 중에 지역 쌀 홍보와 판매 및 여타 농산물의 직거래를 위해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황금들녘에 참새떼를 쫓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는 마을의 풍요로움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다양한 모습의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어 논에 설치하는 허수아비예술제는 해가 갈수록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허수아비만 만들어 전시하면서 시작된 이 축제는 이후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전통혼례와 전통예절, 송편만들기, 제기만들기, 색한지에 편지쓰기와 같은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방아개비, 잠자리 잡기와 같은 자연체험 프로그램, 이밖에도

센터 견학 및 오픈 스튜디오 운영 등과 같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면서 전통문화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

② 농촌 체험 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환경예술제, 허수아비예술제와 더불어 창문아트센터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창문아트센터가 위치한 곳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기에 가능한 프로그램들이다. 이곳은 특히 사이버 팜을 만들어 선진 농업인상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법인 오리농법과 버섯재배, 과수재배 등을 실시하여 신선한 무공해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다. 아울러 주말농장과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찾는 사람들과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증대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데는 창문아트센터의 회원이 곧 농촌체험마을의 고정적인 회원으로 흡수되어 안정적인 회원 확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이는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역 속에서 문화와 예술의 육성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창문아트센터가 지역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본 것이다.

<표 31> 창문아트센터와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달 과정

단계	사업발달상황	시기	내 용
1단계	사업준비1	2002.9~2003.3	① 문화체험마을 협의체 구성 ② 영역별 역할 기능 조절 ③ 영역간 네트워크 통합 ④ 기능 및 프로그램 개발 ⑤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⑥ 관공서의 법률적 규제에 대한 허가 및 승인
2단계	사업준비2	2003.4~2004.3	① 도로 옆 꽃길 조성(8km) ② 각 단위 사업장별 상징 조형물 설치(목장승, 허수아비, 솟대, 남근석, 돌탑, 원두막 등) ③ 체험마을 조감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④ 전통농사체험장 부지 및 전통농기구 등 전시자료 확보
3단계	서비스개시	2004.4~2005.3	① 고객관리 및 개인화 서비스 발굴 ②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를 통한 고객 인지도 제고 ③ 농촌 휴양 프로그램 개발 ④ 관광상품 개발 ⑤ 생태농사체험장 조성 ⑥ 유치원, 학원, 대기업 등을 상대로 자매결연 확대
4단계	시장확산	2005.4~2007	① 녹색 농촌 체험마을 신청 ② 정보화 마을 신청 ③ 유기농법 확산 ④ 먹거리 및 민박 확대 ⑤ 생태 체험학습공간 구축 및 체험 확대

이와 같이 그동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그동안 창문아트센터에서 진행해온 미술체험 프로그램이다. 창문아트센터는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단체회원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러한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촌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지역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주말농장 및 벼농사 체험 등을 통해 마을에서 수확한 농산물들을 직접 직접 거래함으로써 회원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얻을 수 있고, 농촌은 고정된 판로를 확보함으로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마을에서는

보다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밖에도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꽃길 조성 등의 다양한 공공사업에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창문아트센터는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숨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체험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표 32> 창문아트센터의 문화체험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table>
<tr><td rowspan="2">월</td><td colspan="4">행 사 내 용</td></tr>
<tr><td>문화체험(창문아트센타)</td><td>농촌체험(인근 농가)</td><td colspan="2">견 학</td></tr>
<tr><td>1월</td><td rowspan="2">판화 찍기(오목판화, 볼록판화, 직판화, 실크스크린)
연 만들기</td><td>고구마 구워먹기 / 썰매 타기 / 팽이 돌리기</td><td colspan="2" rowspan="2">제암리 기념관
견학(3·1운동 유적지)</td></tr>
<tr><td>2월</td><td>보리밟기</td></tr>
<tr><td>3월</td><td>석고 부조 모형뜨기(여러가지 색을 이용한 부조)</td><td>쑥 캐기, 냉이 캐기</td><td colspan="2"></td></tr>
<tr><td>4월</td><td>비닐 페인팅/난타(주변의 각종 빈 통을 이용한 우리가락 두들기기)</td><td>주말농장(감자심기), 꽃씨심기</td><td colspan="2">남양 5일장견학
(1일, 6일,11일, 16일, 21일, 26일)</td></tr>
<tr><td>5월</td><td rowspan="2">환경 예술제
(깃발전, 오픈스튜디오, 전시회, 환경조형물 만들기)</td><td>창포에 머리감기 / 모심기, 오리방사,</td><td colspan="2" rowspan="2">경비행장 견학</td></tr>
<tr><td>6월</td><td>배, 포도 봉지 씌우기</td></tr>
<tr><td>7월</td><td rowspan="2">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 여름미술학교 개설</td><td rowspan="2">원두막체험
(여름과일 먹기)</td><td>감자수확</td><td rowspan="2">제부도 견학</td></tr>
<tr><td>8월</td><td>(포도수확)
배추심기</td></tr>
<tr><td>9월</td><td rowspan="2">허수아비 예술제
(허수아비 만들기, 전통혼례 및 예절교육, 전통놀이, 송편 빚기)</td><td colspan="2">배추벌레 잡기 / 버섯관찰</td><td rowspan="2">젖소 농장, 사슴농장 견학</td></tr>
<tr><td>10월</td><td colspan="2">벼 베기, 배 수확, 배추 수확 / 김치담기</td></tr>
<tr><td>11월</td><td>탈 찍어 색칠하기</td><td colspan="2">비닐하우스 탐방</td><td></td></tr>
<tr><td>12월</td><td>장승 만들기 / 겨울미술학교 개설</td><td colspan="2">눈 조각 만들기</td><td></td></tr>
</table>

농촌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술프로그램들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과 주말농장 프로그램은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켜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벼농사체험 프로그램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그에 따른 시장 개방의 압력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농촌체험마을의 모든 농가가 점진적으로 무공해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볍씨심기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과 관찰을 통해 일지로 작성하고, 수확된 농산물은 창문아트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찾는 사람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역 농가소득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표 33>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

번호	일 시	내 용
1	4월 초순	볍씨소독 / 상토준비
2	4월 중순	못자리 파종 및 설치
3	5월 말경	모내기(모내기 체험)
4	6월 중순	벼성장 관찰
5	7월 중순	벼성장 관찰(피 뽑기)
6	8월 중순	벼출수 관찰
7	9월 중순	벼성장 관찰(누렇게 익어감)
8	10월 10일	벼추수/탈곡/건조(추수체험 및 건조장 견학)
9	11월 초순	도정(정미소 견학) / 튀밥 튀겨 먹기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접 벼농사를 지으면서 땀과 정성이 배인 쌀을 수확하게 되는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들을 통해 2004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표 34> 2004년 쌀 구매 약정 현황

번호	원 명	신청 쌀 (단위20kg)
1	신기루 온머리 영재 교육 센터	200포(4000kg)
2	보라미술학원	50포(1000kg)
3	색동미술학원	50포(1000kg)
4	삼성 열린 어린이집	200포(4000kg)
5	대림 몬테소리 어린이집	100포(2000kg)
6	둥지 어린이집	100포(2000kg)
7	철마 어린이집	40포 (800kg)
계		740포(14800kg)

이밖에 주말농장 프로그램은 농사체험의 일환으로 농지를 단체에 분양하여 1년에 두 작물, 즉 봄에는 감자를, 가을에는 배추를 직접 심고 재배하여 수확하는 즐거움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2004년 현재 창문아트센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어린이집과 미술학원 17곳을 통해 분양된 농장평수는 총 500평에 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약 1,2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벼농사체험과 주말농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역 연계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앞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창문아트센터를 찾는 다양한 단체의 회원들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가는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지역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창문아트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창문아트센터의 운영 성과

창문아트센터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다양한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창문아트센터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는 예술 활성화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상기한 바와 같이 수화동을 중심으로 산재된 지역의 문화적 자산들과 연계하는 문화·농촌 프로그램들을 통해 먹거리 생산 외에도 놀이 장소, 교육·체험 장소, 휴양 공간 등을 제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 발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이를 상품화 함으로써 친환경적 농업소득은 물론 농외소득의 효과까지 향상시켜서 지역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창문아트센터는 농촌 지역문화의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살려내는 다양한 소재 거리들을 발굴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창출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생활과 전설을 이용한 볼거리와 놀거리 체험을 개발한다.

둘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재로 다양한 향토 먹거리를 개발한다.

셋째, 농촌 환경에 어울리는 쉴거리, 즉 나무그늘과 평상, 호젓한 산책로, 민박집, 사랑방 등의 쉼터를 조성한다.

넷째, 도시에서 듣기 어려운 벌레소리, 시냇물소리, 새소리, 동물울음소리, 다듬이 소리 등 각종 들을거리들을 발굴하여 농촌에 대한 향수를 자극, 그리하여 풍부한 여가·휴양 소재를 육성한다.

다섯째, 농작물의 특성과 재배법, 동식물 이름 알기 등 자연과 농촌을 배울 수 있는 배울거리를 만든다.

여섯째, 다양한 체험 후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값싼 농산물을 살 수 있게 한다.

일곱째, 지식정보화 마을을 조성한다.

창문아트센터는 이러한 성과와 다양한 소재거리의 발굴을 통해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창문아트센터의 주선으로 문화·농촌체험마을과 19개 도시·학원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상기와 바와 같은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양화하여 생태 농사 체험장을 조성해서 특성화된 마을의 이미지를 갖추고자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러한 자구책과 더불어 화성시에서의 전략적 협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5대 역점 시책을 두어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1) 일류행정 시스템 구축
2) 품격 있는 문화 창달과 관광 진흥
3) 시민복지 서비스 확대
4) 체계적인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
5) 소득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이 시책 중의 하나로 관광 휴양과 연계된 소득 지원책으로 문화체험마을 조성이 책정되어 삼천만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는 창문아트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환경예술제와 허수아비예술제의 행사비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창문아트센터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

는 오일장과 주변지역의 폐교와 창고를 활용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3. 창문아트센터의 향후 발전 방안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창작스튜디오는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작업에 전념토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창작스튜디오의 1차 목표이다. 하지만 예술창작 활성화만 고려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구를 도외시하는 것은 작가와 지역 사회 양 쪽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은 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폐교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된 시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주민의 수 또한 많지 않다. 따라서 작가들과 지역주민과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작가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구를 예술적 역량과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농사만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의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역문화사업과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작업공간을 구하지 못해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혜택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문아트센터는 이러한 취지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남양 장날전'과 '폐교와 창고를 위한 전시회'이다.

화성시에는 현재 5곳에서 오일장이 열린다. 남양장, 발안장, 사강장, 오산장, 조암장

이 그것들인데, 이중 남양장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가 가장 깊은 장이다. 남양동은 남양도호부 관아가 있던 곳으로 뱃길을 따라 모인 산물이 신외리를 거쳐 이곳에 모여들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사강장과 수원장과 함께 화성북부시장권을 형성했었다. 최근 화성시청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대형마트까지 들어서는 등 시청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남양장 또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창문아트센터는 남양장날전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남양장날전의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남양장날전 행사 내용

일 정	10월 중 (벼수확기에 맞춰서 추진)
장 소	남양시내 약 2km(남양동사무소에서 남양성지에 이르는 일대)
주최대상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 및 경기대학교·협성대학교·장안대학의 미술전공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참여대상	가족단위, 단체, 기업체, 동아리, 학교 등에서 자유롭게 참여
주요행사	· 가장행렬 : 남양초·중·고교생들의 가장행렬 · 거리전시 : 미술·사진·시화·공예 등 전시. 각 점포의 특성을 살린 설치미술 및 간판과 현수막을 상인과의 협조 하에 제작하고 설치. · 거리축제 : 거리초상화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공연·걸개그림·가훈 써주기·판화 찍기·도자기 시연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남양장날전'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장날전에 대한 첫 기획단계부터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민들에게 공모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될 것이다. 남양장날전을 통해 지역 상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지역 문화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 모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창문아트센터가 기획하고 있는 두 번째 공공프로젝트 프로그램은 폐교와 창고를 활용한 미술전시회이다. 남양과 제부도 사이에는 폐교가 4곳이나 있다. 현재는 모두 문화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폐교

들 사이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빈 창고들이 산재해 있다. 폐교와 창고들은 약 30km를 사이에 두고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 산재한 건물들을 연결하여 연립전 형식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폐교에서는 각각 특성에 맞게 기획전이나 다양한 행사를 열고, 창고에서는 설치미술 형식의 작품들을 전시하도록 할 것이다. 전시기간은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7월과 8월 사이로 하고 포스터 형식의 로드맵을 만들어 방문자의 편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남양과 제부도 사이에 있는 개인작업실의 작가들 주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 한하여 행사기간동안 작업실을 오픈하는 등 일반인들의 방문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지역의 작가들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폐교 운영 주체자와 지역의 개인 작업실 작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약 30km 내에 있는 작업실과 창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로드 맵을 작성하고 행사내용과 일정 등을 확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를 기대해본다.

2)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

창문아트센터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예술작가들의 창작 활성화에도 나름대로의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작가들의 창작 활성화는 우선 기본적인 창작 여건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창작 여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작업실 확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마련해 놓고 추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 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폐교를 작업실로 제공한다는 생각

만 있었을 뿐, 생활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운영상에서 당면하게 되는 모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작가가 온전히 작업에 전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물리적 공간만을 작업실로 제공하는 지원만이 이루어져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어려웠다.

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란 앞서도 살펴봤지만 작가들이 자국이나 외국의 국공립·사립예술기관의 초청으로 생활비와 창작비용을 일부 보조받으면서 얼마간 체류하여 예술적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문아트센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지원에만 머물렀던 기존의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본격화하여 작가를 일시적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스튜디오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젊은 인력을 동참시키는 인턴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매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선정이 끝나면 일정기간 동안 그 프로젝트를 수행시킬 디렉터를 선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협동 작업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지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레지던스 작가를 공모하고, 평론가와 함께 비평적 주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작업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여 예술적 지평을 확장하는 장으로서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약 5명 정도의 작업군을 만들어 교실 1칸에 각각의 책상과 컴퓨터를 배치하고, 현장 위주의 답사와 토론, 설치 순으로 진행시킨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물리적인 공간개념의 지원보다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을 띄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작가들 간의 예술적 교류와 소통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예술적 실험과 예술 공동체를 지향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새로운 예술 생산 기지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스튜디오 지원을 들 수 있다. 스튜디오 지원은 기본적으로 창작 공간을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간을 얻지 못해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는 유망 작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작업장을 무료로 제공하여 그들이 예술 작업을 연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진행시킨 작품들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작품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스튜디오 지원은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인턴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생기 넘치는 젊은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작가들은 예술 창작활동은 물론 창문아트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들을 통해 보다 참신하고 활기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인근 농촌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파급되어 지역과 아트센터가 함께 활성화되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창문아트센터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시킴으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자 한다. 그동안 지역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사회와 괴리된 채 동떨어져 있는 창작스튜디오가 아니라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예술의 소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야말로 지역 속의 창작스튜디오가 될 것이다.

Ⅴ. 결론 : 창문아트센터를 통해 본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활성화 방안

1. 폐교 활용을 가로 막는 문제점

학생수 감소와 교육운영 재정비용 등의 문제로 폐교를 임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설들이 곳곳에서 문을 열었고 지금도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폐교를 임대한 대부분의 시설들은 교육·문화시설, 체험학습장, 단체수련시설,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박물관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농어촌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폐교를 문화시설로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폐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까지 제정되긴 했지만 실제로 폐교를 임대하여 운영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한 게 사실이다.

앞서 살펴봤던 창문아트센터를 예로 들어보자. 창문아트센터가 2000년에 오픈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농촌프로그램들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성과들을 앞서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지역주민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창문아트센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때 창문아트센터가 위치한 운동장을 지역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만류로 인해 이 문제는 현재 보류중에 있다. 이는 지역 속에서 창문아트센터가 어떤 문화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창문아트센터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애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산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스튜디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창문아트센터의 사례를 통해 폐교 활용을 가로 막는 문

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폐교를 활용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창작스튜디오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금도 곳곳에서 폐교를 활용해 시도하고 있는 미래의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소홀하다 보니 운영상에서 빚어지는 계약 조건들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일단 창문아트센터가 화성시와 맺은 임대계약만 봐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기간이 너무 짧다. 현재는 3년 단위 계약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재계약 기간이 1년 단위였다. 아직도 다른 곳에서는 이처럼 1년 단위의 계약을 요구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단기 계약은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언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재계약시 언제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청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아예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아무 말 없이 그냥 비워줘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곳에 누가 애착을 갖고 투자를 할 것이며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겠는가?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려면 우선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실성이 반영된 법적·제도적 정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계약서에서 제시되는 운영비 지원 부재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일단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모든 조항이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임대인의 권리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니 건물은 상당히 낡은 편이고, 그 낡은 건물조차 오래도록 방치되다보니 많은 곳을 고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정도다. 전기나 수도, 보일러 등 건물 내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시설 개·보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지비 역시 꽤 소

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두 입주 작가들이 떠맡아야만 하는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푼 꿈을 안고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운영비용에 쏟아 붓다가 결국 누적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아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 개정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교육용, 주민복지·농업기반시설, 문화예술·문화사업,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촉진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 대부요율이 조정되었으나, 현재 화성시 교육청에서는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타 지역과의 극심한 대부료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창문아트센터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창문아트센터는 2004년에 4천만원에 육박하는 임대료가 책정되었다.

넷째, 관계당국의 폐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폐교 임대에 의한 세입의 확보와 임대인에 의한 폐교 관리 외에 폐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폐교 활용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창문아트센터의 경우 현재 운동장의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폐교로 인해 한 때 정신적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고 있던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아트센터의 작가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을 단지 운동장이 넓다는 이유로 특정 선수들만을 위한 체육시설로 만든다거나 무의탁 노인을 위한 시설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행정 당국의 너무나 일방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곳도 도·시 교육청·기타 기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지역의 해당 관계기관들은 지역사정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폐교 임대인들 대부분이 문화예술인들이고, 이들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농촌 마을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폐교 활용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6> 경기도 교육청 폐교재산 대부 요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⑩ (생략) (신설)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⑩ (현행과 같음) ⑪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 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제1호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을 교육용, 주민복지·농업기반시설, 문화예술·문화사업,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촉진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규정하고자 함.(당초 대부요율 50/1000 이상)

2.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 정립

요즘들어 우리나라에도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창작스튜디오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스튜디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 수준은 매우 낮다. 이렇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더불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허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경직되어 있고, 심지어 그릇된 인식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다. '전통문화의 위기'라든가 '기초예술의 위기'와 같은 얘기들이 그것이다. 문화예술과 같이 인간의 삶에 밑바탕이 되는 기초분야의 위기는 어느 하나의 위기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들은 어떤 특정 분야의 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들이 표면화 되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이 함께 주저앉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지원은 창작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해서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역기반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창작스튜디오의 설립 뿐만 아

니라 운영상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지원의 인식 정립을 바탕으로 한 법적·제도적 정비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예술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구나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 문화에 생기있는 문화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 활기넘치는 지역 문화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문화예술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인식전환에서 출발하여 법적·제도적 정비와 경제적 지원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어우러져 실행될 때 가능하다.

3.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199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법안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1999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였다. 일단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하였으나,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규정은 2004년 5월에서야 만들어졌다. 현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는 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 제1618호에 따라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된 법적 조항인 '문화예술진흥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2조에서 밝히고 있는 '문화시설'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장 9조에서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장 23조 1항은 문화예술공간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형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있다. "문예진흥법 제9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함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법 조항에 준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적용시킨다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일종의 '문화시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예진흥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문화시설'에 '창작시설'을 명문화시킨다면 보다 현실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대부분 문예진흥법 제9조 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 공연장이나 대형 전시장이라면 이같은 정의에 해당되겠지만, 창작스튜디오의 공간은 대다수 소형건축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장치는 창작스튜디오 조성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건축물의 대·소형을 따지기보다는 그 건축물이 담고 있는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창작시설로서의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면, 각종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는 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지위의 보장에 따른 공신력의 향상으로 학교의 특별활동과 교사연수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주말을 이용한 예술창작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약도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폐교와 그 활용

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자발적인 창작스튜디오의 장점을 살리면서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창작시설로서의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의 법제화가 힘들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여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창작스튜디오 지원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운영비의 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창작스튜디오는 대개 국고나 마사회 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설립 당시에만 이루어질 뿐, 운영상에서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용이나 관리·유지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는 대체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건물 자체가 워낙 낡아서 미술창작스튜디오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리모델링하거나 최소한의 시설 보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폐교재산 활용을 위해 해당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국 입주 작가들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으며 창작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된다. 이밖에도 운영상 뒤따르는 비용 역시 계속해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의 보금자리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작가들의 의지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인 장치의 부재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예산이 없다보니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나타나는 대부요율을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액하게 되어 있는 현행 법안을 학교나 지역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창작스튜디오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엄청난 임대료에 허덕이는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창작스튜디오를 장기적 계획 하에 운영하려다 보면 자연스레 시설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현행 관련 조항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반영한 장기 계약과 시설 개·보수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개정과 신설 조항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이바지 하는 바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 개선 방안

우리나라에서도 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방식이 전시회나 공연을 개최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소극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작기반시설을 제공하는 폭 넓고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예술창작 활성화나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보니 대다수의 창작스튜디오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간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는 운영비 문제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만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미술관과는 달리 미술 현장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조적 능력까지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창조적 능력을 생산하고 소통시키는 공간이기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역시 그러한 조건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앞서 외국과 국내의 시범적인 몇몇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인력의 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예술적 사색과 작업을 즐겨하는 예술가들의 특성상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온전히 도맡게 되면 개인의 작업은 고사하고 운영상의 여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예술가 본연의 역할과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때 가졌던 애초의 작업 계획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게 된다.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기획력을 지닌 전문가에 의

해 운영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밖에도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작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성과 현실성을 재고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과 마찬가지로,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스튜디오로 고착되어 있다고 여겨서 경직된 적용을 강조하기보다는 교류와 소통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스튜디오 개념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작환경의 개선과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들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기서 새로운 예술적 개념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도 풍요롭고 다양해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작스튜디오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특화된 스튜디오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예술인과 지역 모두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즉 지역의 특성과 문화예술적 요구가 예술가들의 창조적 역량과 결합된다면,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해외 창작스튜디오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요청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가들이 많은 간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그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즉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전통예술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예술 작업을 선도하는 곳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위상은 문화산업으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는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역에 정착하여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프로그램의 외연 확대를 통해 해외 예술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문화예술적인 교류와 소통이 더욱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만하다. 문화는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정체되고 급기야 썩게 마련이다.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계속해서 흘러야 하고 그 흐름이 좀더 넓게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작스튜디오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 소통을 위해 스튜디오의 연대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도 그렇고, 해외의 미술창작스튜디오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내 또는 해외의 창작스튜디오들 간의 정보와 지식의 교류는 변화하는 예술적 개념을 파악하는 데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창작스튜디오의 특성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교류와 효과는 작가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문화예술 의식의 확대를 불러와 좀더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에도 기여하는 바가 자못 크리라 생각한다.

이는 결국 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특성,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정체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 예술적 잠재성 등을 반영하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유한 개성을 지닌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한 창작스튜디오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모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창의적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양건열 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유현미 엮음 「비주얼 아티스트를 위한 아트맵」. 청어람미디어, (2004).

이인실 「다음세대를 위한 미술 활동집」, 다음세대, (2000).

이정훈 「창의적이고 흥겨운 집단 조형활동」, 다음세대, (2000).

이홍재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문자향, (2002).

정관영 「초등학교 건축의 교실 운영 방식」,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정지영·박영기 「지방 폐교시설을 이용한 주민복지 시설의 활용 방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5권 제2호, (1995).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 모 옮김, 현실문화연구, (1995).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제1집, (2001).

_____ 『예술경영연구』. 제2집, (2002).

_____ 『예술경영연구』. 제4집, (2003).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한국경제조사연구소, (2004).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2004 - 02
폐교활용을 통한 지역기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방안 연구
-창문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05년 12월 31일
발 행 인 송 태 호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1-7200 fax: 031-236-0283
www.ggcf.or.kr
인 쇄 디자인하우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